

영화 "낙시광 산페이" CAST · STAFF 소개

【CAST】

미히라 산페이: 수가 켄타
아유카와 교신: 츠카모도 타카시
미히라 아이코: 가시이 유우

【STAFF】

원작: 야구치 타카오
1969년 만화「장지페고(長持唄考)」으로 데뷔했지만 당시 30살로 만화가로서는 늦은 데뷔였다.
대표작품은 「낙시광 산페이」, 「환상의 뱀 바치헤비」, 「마타기(아키타지방 산간에 사는 오랜 전통을 가진 사냥꾼들)」 등.

감독: 다키다요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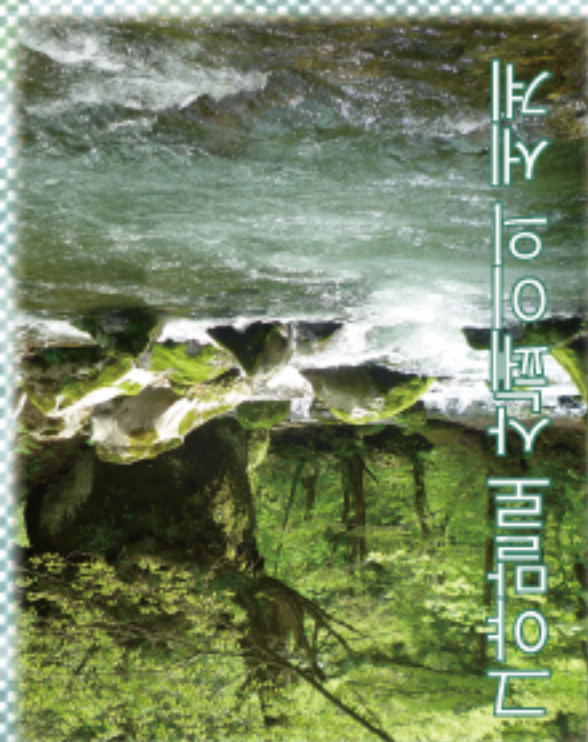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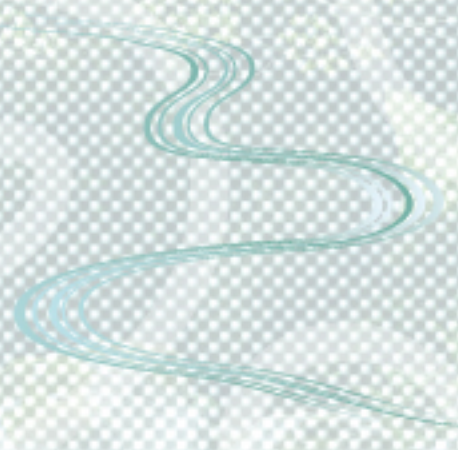
1981년 데뷔하여 코미디작품을 중심으로 화제작을 발표했다. 2008년 「고카이노 오쿠리비토」는 일본 아카데미상 최우수작품상 최우수감독상을 수상. 제81회 미국 아카데미상에서는 외국어영화상을 수상했다.



고조메 드라이브맵 영화 「낙시광 산페이」 촬영지순회 ~바바메지구~

영화 「낙시광 산페이」 촬영지 순회

고조메마을은 마을의 80%를 심림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고조메마을이 촬영지로 선택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다키다요지로 감독이 영화 속 산페이의 집을 찾고 있던 시점에서, 이 마을인 기다노마타 취락을 소개해준 인물이 원작 만화가 야구치타카오였으며, 실제 고조메를 방문한 감독은 고민없이 이곳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또한, 산페이의 집으로 사용된 옛민가는 원래 해체될 예정이었지만, 영화의 촬영의뢰를 덕분에 보존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운명적인 사실은 민가의 주인인 곤노씨는 원작 만화가인 야구치타카오가 학생 시절에 살았던 하숙집의 이웃이었다고 전해져, 숨겨진 운명적인 비화도 있습니다.



고조메마을 바바메의 영화

「낙시광 산페이」 촬영지 코스

「낙시광 산페이」는 아키타현 요코테시 출신인 만화가 야구치타카오의 작품이며, 낙시를 좋아하는 소년 산페이가 일본을 비롯해 세계로 낙시에 도전하는 이야기입니다.
1973년부터 10년 동안 연재된 이 작품은 애니메이션화가 되어 자연과 만화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평가받아 한국, 대만, 이탈리아에서도 출판되었습니다. 특히, 이탈리아에서는 오리지널송이 만들어질 정도로 호평을 받았습니 다. 팬들의 뜨거운 소원을 받아 2001년에 연재도 재개되었습니다. 작가 자신도 어릴 때부터 낙시를 좋아하며, 작품중에 나오는 물고기들의 대부분은 실제 자신이 낚은 적이 있었던 물고기입니다. 이런 사실적인 묘사가 특징입니다.
또한, 곳곳에 낙시의 기술적인 설명이 있어 간접체험이나 입문서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지 명소 설명

① 네코마리 바위
영화속에서는 요나키타리에 향하는 길의 도중에 등장합니다. 네코마리 바위는 높은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큰 바위며 바위에 뒤쪽에는 무수한 뿌리가 바위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모습으로부터 "根古波離(네코마리)"라는 이름이 지어졌다고 합니다.

② 산페이 집 "기타노마타취락"
100년전쯤에 만들어졌다는 옛 민가로 실제 사람이 살았던 민가입니다. 장문의 사진들은 교환했지만, 건물 자체는 계속 사용하지 않은 채, 그대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③ 농가 레스토랑 청류의 숲
제철의 산채와 고조메마을의 특산야채를 사용한 메뉴가 있으며, 고조메산 삼나무로 만든 테이블과 의자에 앉아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④ 분조안
자연으로 둘러싸인 옛 민가를 복원한 숙박시설로 산촌생활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예약 손님만 숙박 가능합니다.
(12~3월은 휴관)

⑤ 휴게소 "고조메"
국도 285호를 따라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설에는 농림수산직매소 "유키노쿠니 고조메"가 있으며 신선한 산채와 버섯 등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레스토랑도 있고 특산물전시관에도 하고 있으며 고조메 마을 특산물 사용 아이스크림이나 우동을 맛볼 수 있습니다. 자연관찰원 주변의 관광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⑥ 고조메성
마을의 심볼로 모리야마심림공원내에 지어져 있습니다. 내부는 심림자료관이며 별채에 사용된 옛 도구나 당시의 사진이 전시되어 있고 임업에 관련이 깊은 대장일(鍛冶)이나 나무통을 만드는 작업 풍경도 볼 수 있습니다. 성을 둘러싸는 산책로에는 관음상이 곳곳에 있으며 고메이카(불교 신자나 절을 순례하는 사람 등이 부르는, 부처를 기리는 노래)의 순서인 1~33번까지의 미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⑦ 고조메 오쿠보
이 장소에는 옛날에 "도야자(金屋座)"라는 주물장인들의 취락이 있었습니다. 도야자는 고조메마을에 맨 처음 들어온 산업이라 하여 도야자에서 만들어진 범종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⑧ 테이쇼지 절
현재는 폐사되었지만, 절의 이름은 이 지역의 취락명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키타현도로 15호 길에 위치한 테이쇼지 절 입구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한 그루의 삼나무가 있습니다.

⑨ "고조메아침장 발상의 마을" 바바메마을
바바메마을은 현재 고조메아침장이 이전되기 전부터 있었다고 하여 마을공원에는 "고조메아침장 발상의 마을"의 기념비가 있습니다.



촬영지를 찾아가는
「남시광 산페이 촬영지」코스

고조메마을 대표 2대 온천을 소개합니다!



① 유키노쿠니노야도(湯の越の宿)

아키타현 중앙부에서는 흔히 없는 본격적인 유황온천입니다. 풍부하게 솟아나는 온천수에는 여러 효소가 있으며 항지온천으로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데 최적이 됩니다.

◎ 영업시간 9시~21시

☎ 018-854-2683

■ 후지카와 아사미나리 아자우치로 25-5

🚗 정기휴일 없음



② 아카구라온천(赤倉温泉)

피부를 붉게 하겠다는 말만 리상 냉천의 미끈미끈한 수질은 아키타현의 온천치고는 어딘가 사람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 영업시간 9시~21시

☎ 018-854-2969

■ 후즈나 나카스마타 아자나에 타라 3-7

🚗 정기휴일 없음

③ 五城目町バスターミナル



④ 산페이의 집 "기타노마타취락"



⑤ 휴게소 "고조메"



⑥ 분조안



⑦ 네코마리 바위



⑧ 고조메성

